6강 역사 속 성이야기

1교시 동성애와 춘화 이야기
2교시 야담에 전하는 남녀상열지사

1. 동성애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떠올리면, 남녀 즉 이성간의 사랑을 우선 생각하게 된다. 남녀간의 사랑과 그에 따르는 결혼 및 성관계를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으로 흔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성관계가 아닌 동성관계에 대한 시각은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도 여전히 부정적이고 해서는 안되는 금지된 사랑이다.
역사상 어느 사회이든 정상적인 사랑이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일탈된 사랑이 있기 마련인데, 일탈된 것이 비정상으로 규정되는 순간 그에 따른 탄압과 규제가 따른다. 여기서 살펴 보려는 동성애도 남녀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 관계로 규정되어 죄악시된 일탈된 성관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양에서 동성애는 죄악으로 그리고 의학적인 질병으로 취급되어 19세기 후반까지 사회적 탄압을 받아왔다.
예컨대 1861년까지 영국에서 동성애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였으며, 독일에서도 형법 제175조에 남성들의 동성애 금지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치료자들은 동성애자의 성적 경향성을 바꾸고자 약물치료, 혐오요법, 전기충격, 거세 및 자궁절제 같은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강간이나 시간屍姦같은 극악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취급된 동성애가 후천적 변태성행위가 아닌, 날 때부터 그러한 선천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의학이 발달하면서부터이다. 더욱이 동성애 즉, 'Homo sexual'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도 헝가리 의사 벤겔트가 처음 의학용어로 사용한 1869년부터였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에서 동성애가 처음부터 죄악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로마시대에 비교적 자유로운 성을 누렸는데, 로마황제들이 동성애를 즐긴 사실만 보더라도 이 시기 동성애는 지금처럼 죄악시된 성관계는 아니었다.
또한 고대 그리스 문화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파이데라스티아paiderastia'라는 '남색'이란 단어도 지금처럼 변태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스 로마시대인들은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음란한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유명한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성애자였다.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를 풍미한 동성애가 죄악시되고 부정적인 것으로 취부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이다.「성경」은 동성애를 신의 섭리를 거스리는 행위로 인식하여 심지어 사형을 언급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감과 종교적 죄악감은 동양 보다는 서양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의 역사는 사실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고대사회에서 좀더 죄의식없이 동성애가 퍼졌을 법하다.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미소년에 대한 찬미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신라시대 화랑이나 원화같은 집단에서 우정을 뛰어 넘는 동성애적 사랑이 존재하였을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고려 공민왕이 말년에 만들었던 미소년 집단인 자제위도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면이 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동성애에 대해 금기하는 면이 아무래도 약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건강한 성관계로 인식된 것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선후기 사회와 춘화

19세기에 풍속화의 한 경향으로서 성희性戱 묘사를 직설적으로 담은 춘화첩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춘화란 대체로 최음을 목적으로 남녀의 성풍속 장면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따라서 춘화에는 남녀간의 성결합 장면을 여과없이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도 있고, 남녀가 만나는 즐거움 자체를 그린 그림도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춘화에는 조선후기 풍속화가인 신윤복의 작품도 있어 우리들을 놀라게 한다. 이들이 이런 류의 그림도 그렸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만, 인간의 삶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성'도 풍속화의 대상으로 예외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조선후기 춘화는 사실력과 예술적 격조를 갖춘 작품들이다. 따라서 이런 류의 그림들이 빠지기 쉬운 음란 외설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높은 회화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춘화와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들 춘화는 전체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성교장면을 과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중국처럼 교범적이거나 도식적으로 처리하지도 않았으며, 또 일본처럼 지나치게 격정적이고도 극적으로 꾸민 흔적이 전혀 없다. 진솔하게 성애를 나누는 정감있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해서 이들 그림이 모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솟구치는 정욕을 해소하거나 성희를 즐기기위한 성적 대상으로서 사회적 특수관계로 결합된 인물들이 등장한다. 말하자면, 호색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기녀를 상대로 성애를 즐기는 모습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인이 여종과 관계하는 장면이나 승려의 파계광경도 다루어졌다. 단순한 성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회 풍자라는 안경을 끼고 성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춘화가 예술성을 넘어 사회성을 지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향락용 춘화가 유입된 것은 늦어도 고려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춘화의 유입이 그 이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를 밝혀 줄 자료가 없다. 단지 원나라 왕실과 밀접했던 고려 왕실이나 귀족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그림들이 들어왔지 않았을까 추측할뿐이다. 물론 이때의 춘화는 몇몇 특권층만이 향유했던 외국문화였을 것이다.
본격적인 유입은 청을 통해 외국의 문물이 한창 들어오기 시작한 17-18세기경이다.「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인조년간에 중국 사절단의 선물품목에 상아로 만든 춘의상이 포함되어 있어 돌려 보낸 적이 있으며, 숙종때에는 춘화를 그려 넣은 도자기가 중국으로 부터 밀반입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 시기에 중국과 일본은 춘화가 매우 유행했다. 그런데도 이들 춘화의 유입이 늦어진 것은 조선시대 특유의 엄격한 보수적 성의식 탓이 크다. 그러나 17세기 이래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성행하던 춘화가 우리 사행원들에 의해 빈번히 목도되면서 국내로의 유입을 막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춘화는 18-19세기 서울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의 영향으로 소비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자체제작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기방을 중심 무대로하여 발달했던 유흥문화의 일종인 춘화일지라도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우리만의 정서를 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본능적 욕정의 세계를 풍류적 삶의 정서로까지 승화시켰던 조선후기 춘화는 구한말에 이르러 급속히 퇴락하고 만다. 이 무렵부터 일본 창녀의 진출과 도시매음이 크게 번창하면서 일본의 값싼 춘화류가 상당량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춘화는 자극적인 음란성만이 강조되어 예술적 품격은 사라지고 저질화의 길로 들어섰다. 예술적 가치를 상실하고 단순한 도색물로서의 의미외에는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없게 될 때, 춘화의 역사적 가치도 사라지고 만다.